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1월 29일 (제88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목회 원칙

목회 32년, 나는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원칙(原則)이란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정립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신앙 원칙의 으뜸은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은 타협점이 있으나 신앙만은 율곡계 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삶과 신앙의 첫 번째 원칙이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다보면 유혹도 밀려오고 협박을 당할 때도 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자 아름다운 여인인 들릴라가 계속 유혹했다. 열 번 짝어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던가. 결국 그의 원칙은 무너지고 만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달랐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 기도하는 원칙을 가진 다니엘과 하나님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킨 그의 세 친구는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사자굴에 떨어지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멋진 것이었다. 나 역시 내 신앙원칙을 지키자니 유혹도 오고 협박공갈도 당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누가 뭐라 하든 이 원칙을 지켜왔다. 이것 때문에 교단으로부터 제명을 당하고 갖은 수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셨다. 이번 설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제사 문제로 갈등하고, 때론 어려운 처지에 놓일 줄 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이 원칙이 흔들리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기에 이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 물론 타협하면 가정의 평화는 올 수 있으나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자면 조금 더디게 갈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으나 원칙을 지키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됨을 알자.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운 설 연휴 되세요!

닭고 기름 치고 조이자

“무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전10:10). 목사님께서 해외 목회자세미나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는 꼭 지도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27년 가까이 교회에서 예배실황을 영상으로 중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영상모니터를 통해 성도들의 수많은 모습을 보게 된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던 1991년 당시 카메라에 잡힌 성도들의 표정은 새로 인도되어온 사람이 아닌 이상 모두가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기쁨, 감동, 은혜의 표정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원인이 무엇일까? 왜 모두 무뎠진 것일까?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정확히 진단하셨다. “연장은 쓰지 않으면 녹슨다. 은사는 쓰지 않으면 녹슨다.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에게 잡힌다.” 지속적으로 갈고 닭으며 기름 치고 조였어야 할 우리 신앙생활에, 잡초를 제거하고 해충들을 잡아내는 관리, 점검이 지속되어야 할 우리 신앙생활에 거미줄이 쳐

이 있다. 그때 목사님의 모습은 정말 시퍼렇게 잘 버려진 칼날을 보는 것 같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사님은 오직 기도로 사시는 분이다. 연장이 녹슬 수도 없고, 은사가 녹슬 겨를도 없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즘 카톡 메시지 관리를 하며 가장 많이 접하는 댓글이 “목사님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다.”는 내용이다. 주로 1990년대까지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20여년이 지나 다시 돌아온 성도들의 댓글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우리 삶을 감사와 감동으로 이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었다.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반응하고 찬양을 할 때도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표정들이었다. 그 시절에는 카메라를 어디에 대아할지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냥 카메라를 갖다 대면 그림이었고, 모니터를 통해 웃고 웃고 은혜로 충만한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촬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회중의 표정에는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 찬양할 때조차도 무감동한 표정들이다. 그래서 카메라는 더욱더 회중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보아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아도 무뎠던 표정이다. 감동이나 감격이 없다.

지고 가시덤불이 덮였다는 것이다. 녹이 슬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 인천 송의동 시절에 교회 버스를 한번 타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로 가득 찬 버스 안은 다시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따로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옆에 앉은 성도들끼리 예배의 감격과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나누느라 온통 시끌시끌했다. 그 목소리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모두 쉬어 있었지만, 충만한 기쁨이 잔뜩 배어있었다. 과거를 추억하고 그 영광만 기억하는 오늘이 녹이 슬어버린 채 침체되어 무기력하다면 무슨 소용인가?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또한 없기에 하는 말이다. 약 17년 전, 전도사 임명을 받던 날, 단상에 올라 가까워서 목사님을 대면한 적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의 모범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바로 목사님의 한결같이 충만한 모습에서 그 비결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묵은 지경을 뒤엎고, 녹슨 영성을 기도로 닭고 기름 치고 말씀으로 조이며 하나하나 기본과 원칙을 찾아가면 된다. 배운 대로 실천해보는 거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 있는 삶을 회복해보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눈물짓는, 그 기쁨으로 해같이 빛나는 천사들의 표정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2017년을 기대한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6:16~32)

모든 기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기점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기주의가 아니냐?’라고 지탄할지 모르지만, 우리 솔직해봅시다. 솔직히 이기주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이기주의 아닌 기업이 어디 있으며, 이기주의 아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잘못되었습니까?

이타주의는 이기주의에서 씹힙니다. ‘곡 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내가 있으니 남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인심을 씹니까?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남의 집 쌀독을 걱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단별신사인데 어떻게 남을 입힐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고후8:14).

사과나무를 통해 배워볼까요. 사과 씨를 심으면 이것은 자라기 위해 주변의 영양분을 뿌리를 통해 다 끌어당깁니다. 나부터 살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기주의지요. 그러나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 나무가 되고 거기에 사과를 많이 맺으면 어찌 됩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 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내 배만 채우고 독식하는 이기주의로 남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타주의로 가는 과정이라면 이기주의가 책망 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먹는 것 앞에서 체면 따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 하는 남편 생각도 잘 안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뭐라 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잘 먹는다고 엉덩이를 두드려 줍니다. 그래야 태중의 아이가 잘 자라고, 출산 후에도 젖이 잘 나와 아이가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일에 상관 말고 네 땅부터 기름지게 하라

만일 엄마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식들만 먹고 생각하다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마 자신을 챙기는 것이 곧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 전에 있던 일인데, 어느 집사가 병들어 제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귀신을 내쫓고 난 후에 당분간 모든 것을 잊고 장성 기도원에 가서 좀 쉬라고 했습니다. 기도원 식구들에게 편의를 봐주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안 내려간 겁니다.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 자기가 없으면 누가 애들 학교 보내고, 누가 남편 밥 해주고 옷 챙겨주느냐면서 안 간다고 했답니다. 결국 그 집사는 얼마 못살고 세상

을 등졌습니다. ‘내’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야 말로 소경 제 닭 잡아먹는 격이 아닐까요? 여러분, 천하에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자신에게 인식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자입니다. 물론 절약은 해야겠지만, 아파도 돈이 아까워서 보약 한 재 못 먹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프다고 해서 가보니 6인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돈 모으다 죽으면 뭐한단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가수 노래처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의 주인공이 아닙니까? 제발 자신에게 인식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투자 좀 하세요. 여러분, 모든 기점은 ‘나’

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고 하신 것입니다. ‘너와 네 집부터’란 겁니다. 내가 먼저 믿어야 남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고 하셨는데, 이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절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성령이 임하면 땅 끝부터 가서 증인이 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곧 내 가정, 내 나라에서 먼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내 나라가 복음화가 될 때 다른 사람, 다른 가정, 다른 나라, 곧 세계선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천만에 육박하니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지난 20일에 취임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일지 모릅니다. 요즘 미국이 경제면에서 쇠퇴하고 있으니 당연한 조치일 겁니다. ‘오직 미국’만을 외쳐서는 안 되지만, 자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려는 것은 어느 지도자든 갖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중국의 덩소평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하여 실용주의 노선인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펼친 것 아닙니까?

어느 최고 경영대학원에서 이런 테스트를 했답니다. 교수



총회장 이초석 목사

가 모두 가족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다들 가족을 그렸지요. 부모님, 아내나 남편, 형제, 그리고 자식까지요. 다음에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지을 수 있는 가족을 순서대로 지우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먼저 지웠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나실 수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다음은 형제를 지운 사람도 있습니다. 형제는 결혼하면 조금 멀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를 지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그 사람을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가 없는 가족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요, 다시 말하지만, 모든 기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샘이 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기술이 없고, 내가 지식이 없는데 퍼낼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땅이 기름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알아야 하고, 내가 있어야 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어야 세계평화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안정되어야 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선교도 하고, 153구제운동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넘게 해외 집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집회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이메일도 오고, 직접 해외에서 저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총선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내가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쳐야 남의 잔도 채울 수 있습니다. 내 땅에 기름이 넘쳐야 남의 땅에 기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말입니다. 그래야 북한도 껴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경제도 뼈저리면서 북한을 안을 수 있겠습니까? 기생의 소생인 입다가 처음에는 본처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잡배들을 모아 힘이 강해지니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럼요, 내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요셉으로 인해 애굽땅이 풍족해지자 주위의 모든 국가들이 머리를 숙이고 먹을 것을 구하려 왔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자를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고 더 많은 부비를 약속한 것도 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공부하고, 부지런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땅을 갈고, 거름을 줘야 기름진 땅이 되듯 말입니다. 나라도 노력해야 하고, 기업도 노력해야 하고, 교회도, 가정도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나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풍성하고, 남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한 가지만 포기하면 돼

‘N포 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N가지의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를 일컫는 단어인데, 2010년도를 기준으로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시달리는 20~30대 한국 젊은이들의 암울한 현실을 표현하며 만들어진 비관적인 신조어입니다.

처음에는 ‘삼포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면서 스펙을 쌓느라 연애를 포기하고, 엄청난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양육비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 ‘삼포세대’에 희망취업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두 가지를 더하여 ‘오포세대’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오포세대’에 인간관계와 희망까지 포기하고 살아간다고 ‘칠포세대’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과 외모관리까지 포기했다고 해서 ‘구포세대’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급기야 꿈도 없는 현실에 비관하여 삶까지 포기했다는 ‘십포세대’ 또는 ‘전포세대’라는 씁쓸한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의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포기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편안함’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처음부터 모든 것 다 갖추고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가려는 마음만 포기한

다면, 포기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위기 좋은 찻집이나 호젓한 레스토랑이 아니더라도 찬바람 부는 공원 벤치인들 어떻습니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달동네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자녀 양육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보니 ‘태어날 때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온다’는 옛 선전들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을 느낍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격식을 다 갖추고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이 있듯이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고, 꿈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N포세대’라는 단어로 자기를 합리화 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꿈을 꾸며 힘차게 달려가는 청춘이 되십시오.

포기는 자살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기도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다보면 아름다운 미래가 손을 흔들며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후일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시절 원자력 잠수함 기획팀에 지원했을 때의 일이다.

면접관이던 하이만 리코버 제독은 느닷없이 “자네의 사관학교 성적은 전 학년에서 몇 번째였나?”라고 물었다. 그때 카터는 대답했다. “820명 중 59등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지미 카터는 이 책망을 계기로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고, 결국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만이 있을 뿐이다.” 무슨 일이든지 차선을 염두에 두면 최고의 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다. ‘산삼을 캐려고 갔다가 안 되면 더덕이라도 캐야지’ 라는 차선을 생각하

면 산삼은 찾지 않고 더덕만 보인다고 목사님은 교훈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눅16:10)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매사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승리와 성공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야...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누구든 승리와 성공을 염원하며 여러 가지 계획과 다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리라는 생각의 전환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변화된 삶은 나타날 수가 없다.

이제 승리와 성공의 삶을 위해 생각을 바꾸자. 최선을 다하는 수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성공과 승리가 다가올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김상욱 목사
ksw9669@hanmail.net



선장을 잘 만나야 한다

여보게!

배는 누구나 움직일 수 있지. 그런데 항로설정은 선장의 몫이라네. 방향설정은 선장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선장이 항로를 따라 잘 가면 아무 사고가 없지만, 항로를 이탈한다면 배에 탄 사람의 운명은 알 수 없게 되지. 지금의 대한민국이 웬지 항로를 이탈한 배 같다는 생각을 하네. 그래서 기도가 더욱 절절하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2:1~2)는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하네. 통치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지. 통치권자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방향설정을 제대로 할 때 나의 생활도 안정되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을 보게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백성들이 평안을 누렸지만, 그들이 방향설정을 잘못할 때 백성들이 고생했다는 거지. 인구조사는 다윗의 잘못된 판단으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대가를 치렀는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고생하는가. 백성들 아닌가. 자기의 배만 채우는 자라면 백성은 허리띠를 더욱 조여야 하는 것이 사실 아니겠는가.

여보게!

그래서 지금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중대한 시기인 거야. 작금의 일들이 얼른 잘 마무리 되고, 또 다음 대권주자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잘 몰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선택되기를 기도해야 하네. 그것이 최고의 애국이지.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 그러나 배의 방향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풍랑에 따라 바꿀 수 있지. 바람을 잘 타는 지도자, 그래서 국민을 안정되게 인도할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하다네. 바다에는 늘 파도도 있지. 그러나 이 파도 역시 잘 타도록 키를 조정할 사람이 필요한 거야. 요셉이나 느헤미야처럼 말일세.

우리 교단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네. 나는 이 사명을 우리 교단에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완속되는 날까지 쉬지 않을 걸세. 자네도 동참하게나.

朋友

코이의 법칙, 생각을 키우세요

일본에서 관상어로 흔히 키우는 코이(비단잉어)는 키우는 장소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작은 어항에서는 몸집이 5~8cm, 수족관이 나 연못에서는 15~25cm정도 자라는 관상용 잉어에 불과하지만, 넓은 강물에 방류하면 90~120cm까지 자라 한 사람이 겨우 들 수 있을 정도의 대어로 자라납니다. 스스로 자신이 자라는 환경을 감지하고, 그에 맞춰 성장을 조절해 몸집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코이의 법칙’은 코이라는 물고기가 환경에 따라 성장에 차이를 보이듯, 사람도 환경 혹은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쉽게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겸손, 내려놓음, 낮아짐과 같은 단어들을 은연중에 왜곡하여 생각의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진정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생각과 마음의 한계를 완전히 열어 놓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작은 어항과 연못에 쫄쫄 매어 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을뿐더러 응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

고 드넓은 하늘에 흩어진 수많은 별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십 즈음까지 후사가 없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 지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던 큰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창15:6).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믿어 지금까지도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들 합니다. 실력보다 집안의 재력에 의해 삶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타고난 환경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생각의 힘입니다. 우리가 담은 생각의 크기에 따라 삶은 반드시 변화되고, 물질 또한 그런 사람을 돕기 위해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다면 말입니다. “너희가 내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김고은
khjc77@hanmail.net

:: 성경에서 배운다 ::

:: 참된 깨달음 ::

단순화의 힘!

70년 전통의 글로벌 장난감 회사 ‘레고’가 한 때 파산 위기를 맞았을 당시 수립한 전략은 ‘단순화’였다. 미적 감각을 추구하느라 복잡하고 어려워진 디자인을 누구나 조립하기 쉽도록 바꾸고, 회사 시스템 역시 단순하게 바꾸는 혁신을 시도했고, 그 결과 ‘레고’는 파산위기에서 벗어나 장난감 왕국의 명성을 되찾았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다. 너무 번잡한 목표와 시스템이 오히려 개인과 단체를 망치고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성경 속 마르다가 그랬다. 갑자기 예수님 일행을 맞이하게 된 마르다는 손님 대접으로 바쁜 자신과 달리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느라 자신을 돕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신을 돕게 해달라고 불평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10:41~42)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화려한 대접과 준비에 마음을 빼겨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지 초점을 잃어버렸음을 일러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다양한 대접과 화려한 음식에 있지 않았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붙여넣는 일에 집중하셨고, 그러던 와중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화려함과 분주함에 중심을 잃어버린 마르다는 동생에게 복음이 심겨지는 그 중대한 순간에 오히려 흐름을 끊고 마리아가 자신이나 돕게 해달라고 청했으니 그녀의 분주함은 책망 받을 만한 것이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도 단순화의 힘을 보여주는 예이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하자 32,000명의 사람이 모여들었다. 미디안 군대의 막강한 기동력과 군사력을 물리치기에 32,000명

도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삿 7:2)는 말씀과 함께 군사를 300명으로 단순화시키신다. 그리고 기습공격을 시작하자 적들은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며 난장판을 벌이다 허겁지겁 도망갔고, 기드온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은 전쟁승리의 비결이 사람의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것이 아닌 단순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출정할 때 가능한 것임을 가르쳐주신 것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는 좀 더 단순 명료한 목표와 시스템으로 일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하여 2017년은 마르다처럼 목적을 잃지 않고,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영광되고 축복된 삶이 되길 기대해본다.

하인명
renming@daum.net

:: 성도 간증 ::

왼쪽 귀가 뚫렸어요



할렐 루야! 총회장 목사님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안 들렸던 왼쪽 귀가 조금 멀리 들립니다.

어려서부터 동네에서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는귀먹었다고 놀리고 그랬던 것

이 생각납니다. 결혼할 때도 아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창피도 당하고 친구도 놀려대며 웃곤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

다. 심혈관이 안 좋아 장성기도원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며 세 차례나 눈물과 콧물 흘리게 하시더군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단 위로 환자들을 올라오라 하시고 축하하실 때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나

도 귀가 들릴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더니 귀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심혈관도 좋아졌습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열정을 다해 기도해주신 총회장 목사님께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금천교구 문승남 집사

:: 생활 속의 잠언 ::

달리다 굴(Little girl, I say to you, Get up!)

우리 인생살이가 언제 절망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는가?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어두움이 깊을수록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또한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성경 속 역경의 주인공인 야곱이나 고난의 대명사인 욥만큼은 아니지만, 인생살이 수십 년 돌아보면 야곱도, 욥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당뇨합병증으로 눈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이다. 두 번의 망막수술과 양 눈에 진행 중인 녹내장의 시야 확보율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급기야 두 번의 백내장 수술도 최근에 마쳤다. 이제는 더 이상 눈 때문에 힘들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망막 천공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어쩌면 실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하여 며칠을 우울과 한숨으로 지내는 중, 복음송의 가사가 귓가에서 팽팽 거린다. 인생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서서 일 때면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

의 손길을 기억한다. 벼랑 끝에서 ‘이제 떨어지면 끝이겠구나!’ 라고 단념하지만 어느 순간, 목사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을 날고 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긍정의 마음과 주님의 무한한 사랑 덕분에 절망이라는 단어는 복음송 가사어나 나오는 단어이며, 나와는 전혀 무관한 단어로 알고 생각했지만, 만약 ‘맹인이 된다면 어쩌하지?’ 라는 생각은 나를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기 바쁘다. 마인드 컨트롤도 소용없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 눈으로 인해 이십 수년 운영하던 사업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 말할 나위없는 고통이다.

하지만 절망이라는 단어를 희망으로 바꾸고, ‘맹인이 된다면’이라는 생각 대신에 ‘비록 맹인이 된다고 할지라도’로 바꾸면 그 다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소녀야, 일어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죽음에서 깨어난 그 소녀처럼(막 5:41),

내 삶도 주님의 뜻에 따라 새롭게 시작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롭게 시작된 한해와 함께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한다. 절망에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절대 그럴 리 없지만, 비록 나의 시력이 희미해진다 하여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빛이시니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의 증인으로,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

2017년 새해에는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처럼,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의 세상으로 향해하는 선장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빛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어둠은 결코 이길 수 없다. 어두운 절망의 커튼을 거둬내고 희망의 빛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2017년이 되기를 기도해본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사랑을 얻으려면!

한 여인이 천사가 개업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무엇을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팝니다.” 여인은 인간이 바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 그리고 행복과 지혜,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미안하지만 주문을 잘못하셨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열매가 아닌 오직 씨앗만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처럼 과정은 생략한 채 완성된 제품만을 원할 때가 많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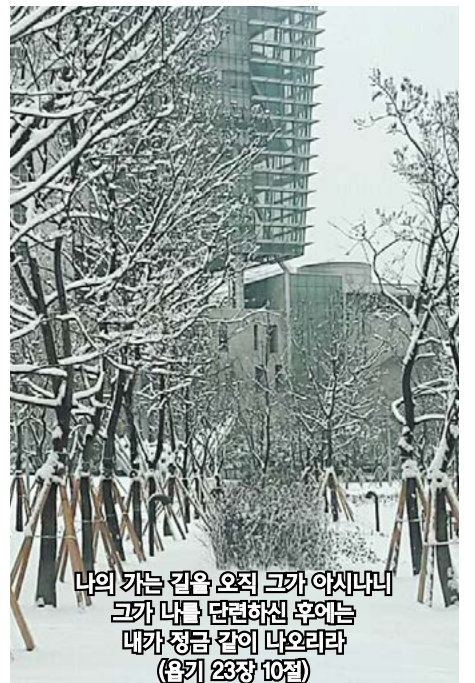
니다. 그러나 우리 삶속에서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구역장 때 성경을 읽는 중 큰 깨달음이 있어 간절한 믿음을 담아 사랑을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고전13:13).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그저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과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씨앗’이었습니다. 제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 사랑을 가르쳐주셨으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기암 환자를 제 곁에 데려다 놓으시기도 했

요. 결국 저는 혹독한 환경과 기나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했고,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듯합니다.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포용, 자기 낮춤이 선행된다. 나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칠십년이 걸렸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들려주신 인생덕목의 한 대목입니다.

한 뭉치의 눈도 꾸준히 굴러야 눈사람이 되듯 끈질긴 훈련의 과정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씨앗이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요. 김정옥 전도사
jcc0115@naver.com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극심한 겨울을 지남 뒤 봄에 피는 잎은 한층 무르익 사람도 역경을 통해 아름답은 보석이 된다